

우리나라 산업간호

김 화 중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 서 언

‘산업간호’란 무엇인가? 혹은 ‘산업보건간호’라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영어로는 Occupational Health Nursing이라고 하나,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여 ‘직업보건간호’라고 할 것인지, 혹은 Industrial Health Nursing, 혹은 Industrial Nursing, 혹은 Occupational Nursing이라고 하면 안되는지? 등의 명제가 산업간호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는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명명된 명제는 그 단어에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석탄공사가 산업보건의 주축을 이룰 당시부터 간호가 개입되어 산업보건 사업에 기여하여 왔다. 그 모습이야 현재 기대하는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산업간호의 뿌리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왔던 산업간호의 흐름에 따라 산업간호의 개념을 개발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이 글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산업사회에서 간호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되어야만 하는가를 산업보건계와 보건의료계의 흐름에 따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속에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둘째, 이 모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산업간호의 대상, 목표, 역할과 기능, 간호과정, 간호수단 등을 진술하는 산업간호의 정의를 뚜렷이 제시한다. 셋째, 이를 산업사회에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실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산업간호사업 방향과 이 사업을 주도하는 산업간호 인력개발

II. 본 론

1. 우리나라 산업간호의 위상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어 이에 따라 모든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보건의료제도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와 궤를 같이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기업형 보건의료전달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보건계도 자연스럽게 자유기업형 산업보건의료 전달체제로 되어있다. 그러나 산업간호는 기업이 아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산업보건은 산업보건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존재해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보건 전문가는 산업보건의사, 산업위생사, 산업간호사이다. 이들은 각 전문분야별로 독특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시켜가고 있다. 산업보건의는 직업병을 조기발견하고 이를 치료하며 또한 예방한다. 산업위생사는 작업유해환경 요인을 측정하고 이를 조치하며 유해요인 발생을 예방 혹은 제거하는 전문가이다. 여기에 산업간호사는 산업근로자의 일상생활, 작업활동 등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산업장을 돌보는 산업보건전문가이다. 그러므로 산업간호의 지식과 기술은 산업체를 이해하고 근로자의 일상생활 및 작업활동을 연구하여 근로자의 지

식과 기술수준에서 스스로를 돌보면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인 안위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산업보건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을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기업형 보건의료전달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의원 및 협회조직을 통하여 산업보건사업이 제공되는 것과 산업장에서 산업보건전문가를 고용하여 산업체 자체가 산업보건사업을 실시하는 형태가 있다.

이 중 하나는 병의원 및 협회에서 제공되는 산업보건사업은 제공된 사업에 상응하는 보건의료비로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산업보건의나 산업위생사는 산업보건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의 주인이 되어 산업보건의료 기업의 기업가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간호사는 산업보건사업기관의 기업주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 고용되어 산업간호사업을 제공한다.

또 다른 형태의 산업보건사업은 산업체 자체가 산업장 보건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는 산업일차보건의료의 범위로서 사업내용을 정하고 산업간호사에 의해서 주도된다. 산업간호사에 의해서 제공되는 산업간호는 병원이나 협회와 같은 산업보건기관이나 산업보건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산업체에 응당의 보수를 받고 고용되어 제공되고 있다.

셋째, 산업보건사업에 대한 보건의료비는 기업주가 부담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산업보건 상품으로 개발된 것이 일반검진, 특수검진, 작업환경측정, 산업장보건관리대행이다. 이들은 정액제와 같은 보건의료비 지불방식에 의해서 수가가 결정되며 제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주가 산업보건사업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산업간호사의 산업간호중 병원이나 협회와 같은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산업장보건관리라는 상품으로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건의료비는 산업간호사와는 무관하다.

넷째, 산업보건사업은 산업보건전문가에 의해서 제공된다.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는 산업보건사업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민간 산업보건사업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산업간호는 정부조직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고 산업보건사업과 통합되어 있다.

다섯째, 산업보건사업은 이에 상응되는 보건의료비로 산업보건의, 산업위생사, 산업간호사에 의해서 근로자나 산업체에 일차, 이차, 삼차산업보건의료로 제공된다. 산업보건의와 산업위생사는 이차산업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일차산업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간호사의 산업장보건관리와 연계체계 속에서 산업보건사업을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산업간호사는 산업일차보건의료를 근로자와 산업체에게 제공한다. 이는 산업간호의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산업간호의 위상을 정리하면, 산업간호는 산업보건의 일분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산업간호사가 산업체와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고용되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정부의 지도, 감독하에 근로자와 산업체를 대상으로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실천과학이다.

2. 산업간호의 의미

산업간호의 정의를 산업보건과 간호의 논리가 합치된 것으로 규명하는 외국의 경우도 있다. 이는 보건간호가 보건학과 간호학의 중복된 논리로 설명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논리는 산업보건과 간호의 이론이 바뀌면 산업간호도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산업간호학의 학문이 갖는 독특성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그 학문이 갖는 독특성을 그 이론적 틀에 맞도록 규명해가는 경향이다. 물론 그 학문의 이론을 개발하는 데에는 근접 학문의 논리를 도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타학문들의 어떤 부분틀이 합쳐진 것이 이 학문의 이론이라는 논리는 받아들여기가 곤란하다.

산업간호란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업공동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위생관리, 보건교육을 일차보건의료 수준에서 제공함으로써 산업체의 자기건강관리능력을 적정기능수준까지 향상시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과학적 실천이다.

산업간호대상은 산업공동체로서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산업공동체 내부에 있는 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근로자들 ②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작업환경들 ③ 산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와 환경들간의 상호작용 및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 ④ 생산품 등으로 구체화 시킬 수 있겠다. 그러나 이중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작업환경을 또는 작업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공정과정을 이해하여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간호의 목표는 근로자의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하는 산업보건의 목표를 상위목표로 삼아 이의 달성을 위하여 산업간호의 대상인 산업체가 자기건강관리능력을 적정기능수준까지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즉 산업체나 근로자를 능동적인 입장에 두고 그들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하도록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산업체 근로자개개인의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산업체의 포괄적인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게 된다.

또한 산업간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은 근로자의 건강관리 측면과 산업환경 위생관리 측면에 대해 일차보건의료 수준으로 수행한다. 다시말하면 근로자의 건강문제나 산업환경 위생문제 중 산업체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을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위생관리, 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일차보건의료활동이 산업간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일차보건의료란 의료의 중증정도에 따른 구분과 주민이 의료를 이용하는 단계에 대한 구분에 의하여 간단하고 기본적인 건강

문제를 일차단계에서 해결하는 의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차수준의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전체 건강문제의 80%가 넘는다고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는 건강의 개념을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인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건강에서 일탈되어 있으며 또한 이 일탈된 상태에서 정상으로 회복하려는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간호는 건강수준의 유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수준의 건강일탈을 일차보건의료의 이론과 실제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차수준의 문제를 건강관리에 대한 자립력을 향상시켜 근로자 스스로 건강을 지키도록 건강권을 지켜주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접근법에서는 ① 쉽게 이용가능하고 ②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③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④ 국민의 지분능력에 맞는 의료수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첫째, 모든 근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수입, 적위, 작업장의 위치, 업무분야, 학력, 성별, 시간 등에 구애없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근로자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보건의료를 수용하는데 영향을 하므로, 일차보건의료 접근은 그들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맞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근로자가 산업일차보건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넷째, 산업일차보건의료는 근로자의 지분능력에 맞는 의료수가로 제공되어야 한다.

일차보건의료의 내용은 인간의 기본적인 건강문제로서 흔히 발생하고 간단히 처치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안전한 음료수의 공급 및 기본환경위생, 보건교육, 보건영양,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예방접종, 지방병관리, 통상질환 및 상해관리, 정신보건, 기본약품의 제공 등이다. 이들 내용을 산업일차보건의료에 수용하고, 일차보건의료의 수준인

것은 의뢰한다. 다시말해 산업체를 건강진단 하고, 산업장 순회,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관리실 운영, 근로자의 건강문제 관리, 산업위생 관리, 보건교육 등을 계획 수행 평가한다.

3. 우리나라 산업간호사업 및 인력개발

우리나라 산업간호사업은 산업간호위상과 정의를 기초로 산업사회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실체로서 그 모습을 확고히 해야 한다. 산업보건계에서 산업간호가 어느 분야보다도 산업장에서 근로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건강을 돌보는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는 타 전문분야보다도 비영리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하여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위치가 곧 산업간호사업이기 때문이다.

산업간호사업은 현재 우리나라 산업보건사업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는 산업장 보건관리의 주요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보건관리가 요구하고 있는 사업목적이나 내용의 대부분이 산업간호사업에 의해서 달성되고 제공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산업장보건관리는 산업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산업일차보건의료는 산업간호사업의 주축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산업간호사업을 일차보건의료의 철학, 접근법, 내용을 기초로 산업장 보건관리라는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1990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산업간호사의 직무로 일차의료행위를 부여한 바 있다.

산업간호사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파수꾼으로서 산업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산업장보건관리의 핵심인력이다. 따라서 산업간호인력은 산업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산업장 보건관리의 책임자로서 교육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간호사의 기본간호교육과정에서 기초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채용시 교육 및 보수교육을 통하여 재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간호인력의 전문화를 위하여 분

야별 간호사로 산업간호사가 만들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도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산업간호사가 교육되어야 한다.

Ⅲ. 결 언

1990년 9월,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산업간호 학회를 발족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간호의 위상, 산업간호 개념, 산업간호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노력해 왔다. 산업간호는 우리나라 산업보건계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산업일차보건의료의 지식과 기술을 산업장 보건관리로서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과학적 실천이다. 산업간호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 산업체에 산업간호사를 채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물론 산업보건관리대행기관에 채용되어 산업장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산업간호사업이 실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산업간호이든 산업간호는 근로자의 자기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스스로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으로 존재한다. 산업간호사업은 산업보건계의 타 분야와는 다르게 비영리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산업간호사는 근로자의 파수꾼이다.

참 고 문 헌

- 김화중(1991). 산업간호, 산업보건 제30호, 대한산업보건협회.
- 김화중(1991). 우리나라 산업보건사업의 바람직한 방향, 안전보건 제7월호.
- 김화중(1991). 기업경영과 산업보건, 경영계 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 김화중(1991). 산업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직무와 책임,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업병예방대책 세미나 자료집.
- 김화중(1992). 산업간호학, 수문사.
- Brian Perrot(1984). Occupational health practice, Wright Bristol.

(페이지 49에서 계속)